

15. '95年 下半期 經濟運營方向

資料提供：財政經濟院

I. 상반기 경제동향

- ◇ 상반기중 우리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확장세가 지속되어 10%수준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추정

	94. 4/4	연 간	95. 1/4	상 ¹⁾
· 경제성장(%)	9.3	8.4	9.9	10수준

¹⁾KDI전망

- ◇ 생산과 투자는 활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, 일부 업종간 성장격차는 지속

	94. 4/4	연 간	95. 1/4	4
· 산업생산(%)	13.5	11.1	14.1	13.7
(중화학)	16.8	13.9	17.9	19.0
(경공업)	5.5	3.1	3.9	△1.1
· 설비투자(%)	30.6	23.3	25.2	-

- ◇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

	94. 3/4	4/4	연 간	'95. 1/4
· 민간소비(%)	7.5	7.8	7.4	8.7

◇ 물가와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 지속

(비전년말, %)

	94. 상	하	연 간	95. 상
• 소비자 물가 (전년동기대비)	4.3 (6.2)	1.3 (6.3)	5.6 (6.2)	3.1 (4.7)
• 토지가격	△0.7	0.1	△0.6	0.1 ¹⁾

¹⁾ 1/4분기

◇ 경상수지는 수출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증가로 적자규모가 확대

○ 그러나 수입의 내용이 건실한데다가 물량면에서는 수출증가율(23.0%)이 수입증가율(22.5%)을 상회

	94. 1~5	95. 1~5
• 수출증가율(%)	11.8	33.0
• 수입증가율(%)	15.7	36.8
• 경상수지 ¹⁾ (억불)	△23.4	△43.4

¹⁾ 1~4월 실적

◇ 총통화(M₂)는 민간여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, 정부 및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환수로 16%대에서 안정

○ 시장금리는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

	94. 12	95. 1	3	6
• 총통화증가율(평잔, %)	17.6	19.5	16.5	16.0내외 ¹⁾
• 회사채수익율(월말, %)	14.3	15.2	14.2	14.7 ²⁾

¹⁾ 추정치

²⁾ 6/26일

◇ 노사관계는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비교적 안정세

◦ 실업율은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종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

	94. 상	95. 상
• 노사분규건수(건수)	36	31
• 실업율(%)	2.5	2.1 ¹⁾
• 구인배율(%)	2.2	2.8 ²⁾

¹⁾ 1~4월 ²⁾ 1~5월

◇ 종합 ◇

<p>◇ 상반기에는 「엔」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당초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업종간의 성장격차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9대지원시책, 주택미분양해소대책,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대책 등을 추진 <p>◇ 물가는 농축산물의 가격안정, 수입확대, 그리고 인력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화학 중심의 성장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</p> <p>◇ 경상수지는 빠른 경기확장에 따른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확대로 적자폭이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수립과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비율 축소 등 구조적인 적자개선대책을 추진
--

II. 하반기 및 96년 경제운영 여건

1. 세계경제 여건

◇ 세계경제는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확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 선진국 경기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.

	93	94	95	96
• 세계경제성장율(%)	0.8	2.1	3.0	3.6
- 선진국	1.0	2.8	2.9	2.8
(미국)	(3.1)	(4.1)	(3.0)	(2.3)
(일본)	(△0.2)	(0.5)	(1.8)	(3.0)
- 아시아	4.2	5.3	5.8	6.0

자료 : WEFA

◇ 작년이후 강세를 보이던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근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

	94. 6	12	95. 1	3	6 ¹⁾
• 로이터지수(연말대비, %)	20.7	32.0	3.4	6.1	4.8
• 유가(Dubai, \$/Bl)	15.8	15.4	16.1	16.4	16.3

¹⁾ 6.1~27일 평균

◇ 「엔」화 환율전망은 불투명하나 다소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며, 국제금리는 세계경기호조로 다소 상승할 전망

	94	95. 6. 28	95	96
• 환율(¥/\$)	102.3	84.2	90.6	89.2
• 리보금리	4.7	6.0 ¹⁾	6.8	7.0

자료 : IMF, DRI ¹⁾ 6.27일

2. 국내경제 여건과 전망

◇ 하반기중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(년간 9.2% 수준)

- 설비투자는 공급능력 확충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
- 민간소비는 소득증가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

◇ 경상수지는 하반기중 적자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(년간 80~90억불 적자)

◦ 수출은 「엔」고 효과 지속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

◦ 수입은 자본재수입수요의 감소, 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

◇ 물가는 일부 불안요인이 있으나 상반기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(소비자물가 5%이내)

◦ 그러나 경기확장세가 소비부문에 확산되고, 농산물의 작황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반등하는 경우 내년이후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될 가능성

◇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로 지역개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

◦ 그러나, 지역이기주의와 과다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

Ⅲ.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

◇기본방향◇

◇ 국내경기는 연말이나 내년 1/4분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된 후 완만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나, 그간의 안정화 노력으로 급격한 경기후퇴는 예상되지 않음.

◇ 그러나 경기상승국면을 최대한 장기화하면서 내년이후의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경상수지적자폭을 축소해 나가기 위하여는 금년 하반기중에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

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기조하에 성장잠재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 부문의 구조개선 노력을 본격화

◦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는 대중적 시책의 추진보다 자본재 산업의 착실한 육성 등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

-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식산업 육성,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등을 추진
- 국민생활의 안전확보, 환경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
- 지방자치에의 성공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배가되도록 여건조성

1. 물가안정기반의 확고한 정착

◇ 통화·재정 등 거시정책수단의 안정적 관리 지속

- 통화는 경제안정기조가 지속되므로 당초 목표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되, 시중자금사정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대응
- 재정 부문에서도 경기안정화 노력을 지속
 - 94년도 세계잉여금은 전액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기금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
 - 내년 예산편성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
- 토지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투기의 지속적 억제에 주력하면서, 95.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을 도모

◇ 유통혁신의 촉진 등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유도

- 수입개방 확대효과가 물가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
 - 수입상품 유통단계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고,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을 이유로 배타적 독점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
 -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다변화품목에서 제외
- 「유통산업 근대화 시행계획」(95.5)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류체제의 효율성을 제고

◇ 노사관계의 합리화와 임금안정 도모

- 금년초부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협력 분위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협력 캠페인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 기능을 활성화
-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노조에 대한 과도한 경비지원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슬산하여 개선하고, 공공부문의 임금가이드라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

2. 국제수지적자의 구조적 개선

◇ 「자본재산업 육성대책」의 착실한 추진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

-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의 신규지원분에 대하여 7월부터 자금지원을 실시(95년중 총1조원 지원)
 -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
-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화전략품목을 선정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지원(750억원)
- 자본재의 표준화를 위하여 「자본재 표준화 5개년계획」을 수립·추진하고 하반기중 400여개 품목의 품질인증을 실시
- 외국인기업전문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인하,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인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

◇ 에너지·자원절약시책의 강화로 원유 등 원자재수입수요를 감축

- 중·장기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유류 등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방안을 검토
-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

3. 성장기반의 확충

◇ 지식서비스산업의 적극적 육성

- 정보처리, 디자인, 설계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집약화를 촉진

- 신용보증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
-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 세제 및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

◇ 기술개발 및 정보화 촉진

-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「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」 및 「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」을 수립
- 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사업 중심으로 비용관리 및 경영시스템을 도입
-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대학 및 연구소 등 기존의 공공전산망 일부를 시범수용

◇ 금융개혁의 본격추진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촉진

- 3단계 금리자유화를 하반기중에 실시
- 금융산업 개편을 가속화하여 경쟁력강화 기반을 확충
 - 증권산업 및 잔류투금사 개편안을 하반기중 확정
 - 선물거래 및 예금보험제도의 입법화를 추진
- 96.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세청의 전산설비를 확충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

◇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

- 「중소기업지원 9대시책」과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방안(95.5)을 착실히 추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
 -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신용보증지원을 강화
 - 경남·광주 등에 지역통신보증조합 설립을 추진
-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 조기구축 등 신용정보 관리 및 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여건을 조성
-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창업보육센터」 설립을 늘리고, 창업보육센터

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

- 임대공단의 조성과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을 활성화

◇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

- 고용보험 전산망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고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민간직업소개사업의 업종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
- 외국인근로자(2만명) 도입과 산업기능요원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인력 공급을 확대
- 여성 및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, 미취학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육아비소득공제제를 도입
 - 상시근로자 6%이상 고령자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1인당 월3만원의 장학금을 지급

◇ 규제개혁의 본격화와 공정경쟁 질서의 정착 촉진

- 토지, 금융, 환경 등 11개 중점대상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8월까지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계법령의 정비를 완료
- 경쟁제한적인 법령과 사업자단체의 정관·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제조 및 건설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·시정 노력을 강화

◇ 농어업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 및 수출확대 지원

- 농어촌 투자재원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융자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립
- 농수산물 무역정보망 구축 등 수출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해외시장개척 노력을 강화

◇ 경제세계화의 가속화

- 9월부터 본격화되는 OECD가입 협의시 부문별 중장기 개혁 계획의 틀속에서 OECD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협의
- 식품검사 및 유통기한과 관련된 국내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

- 통상마찰의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의 조기경보와 신속한 정책대응의 연계체계를 강화
-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4. 국민생활 수준의 실질적 향상

◇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노력 강화

- 건설시공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적격낙찰제를 시행하고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
- 도시가스 배관설계·시공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, 가스안전평가 실시 등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보강

◇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의 발전

- 지난 5월 발족한 「국민복지기획단」이 중심이 되어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한국형 사회복지증진 계획을 수립
- 연내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「식품·의약품관리청」의 설립 추진을 본격화
- 95.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, 농어민연금제의 조기정착에 주력

◇ 환경개선 및 교통난완화를 통한 국민생활여건 개선

- 「21세기 환경비전」의 구체화작업을 추진
- 맑은물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년중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반시설 216개의 신·증설을 추진
- 금년중 수도권·부산권 등 대도시권의 지하철 총 264.7km를 건설하고 버스전용차선을 185km 확대

5.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

- ◇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개편
 -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「매칭펀드」 형식의 정부자금 지원사업을 확대
 - 정부지원은 기술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우선 지원
 - 지역별 산·학·연 협력연구센터 육성을 통한 지역기술개발 체계를 구축
 -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정책 수립 및 집행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기관 등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능을 강화

- ◇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협조 강화 및 자치역량 제고
 - 「시·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」을 정부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조화를 도모
 - 「시·도 경제협의회」를 활성화하여 주요 지역경제현안에 대한 심의·조정 및 지원 기능을 제고
 - 지자체의 지역경제정책 입안 및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행정 교육을 강화

◇ 맺는 말 ◇

- ◇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통하여 호황국면을 장기화하고 향후 성공적인 연착륙(soft-landing)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
- ◇ 이와 함께 세계화와 지방자치의 본격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